

'별들의 축제' 밀라노서 강원으로...전국동계체전 막 오른다

17개 시·도 4373명 출전...28일까지 빙상·스키 등 8개 종목 열전 광주 160점 이상 12위·전남 330점대 8위 목표...순위 도약 도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국내 최대 동계 스포츠 축제가 시작된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373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빙상, 바이애슬론,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8개 종목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친다. 광주는 빙상, 스키, 컬링 등 6개 종목에 총 1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160점 이상 득점과 종합 12위 목표에 도전한다. 광주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동계 종목 저변 확대에 나선다.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 컬링 중등부가 처음 동계 체전에 출전하는 등 빙상 종목 선수층이 넓어졌다. 앞서 사전경기로 치러진 컬링 남자 15세 이하부에서 광주체중(김현호·유태민·임강민·박해성)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첫 동계체전에서 광주의 첫 메달을 안겼다. 전남대학교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단과 산악 스피드 종목의 최민준·김유담(보로초5), 임도준(광천초5) 등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가족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아이스하키에서 박준태(삼육초4)·박이루(송원초3)·박리오(살레시오초3) 등 '3형제'가 출전한다. 특히 박이루·박리오는 쌍둥이 형제의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주원(신용초4)·김채연(신용초3) '남매' 선수도 있다. 영주빙상장을 중심으로 빙상 종목 육성에 힘쓰고 있는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춰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루지를 제외한 7개 종목에 총 25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330점대 득점과 종합 8위를 목표로 한다. 전남은 특히 강세 종목인 바이애슬론과 스키에서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 바이애슬론에서는 '다관왕' 티모페이 랍신과 '국가대표'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표로 한다. 랍신은 제103·104·105회 대회 4관왕에 이어 제106회 대회에서도 2관왕에 오른 국내 정상급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다관왕에 도전한다. 스키 종목에서는 전남체중·고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지난해 4관왕을 차지한 조



광주 아이스하키 초등부 대표팀이 24일 강릉아이스하키센터에서 제107회 동계체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다은(전남체고1)과 5관왕에 오른 이윤주(전남체중1)가 각각 고등부와 중등부에 출전하며, 알파인에서는 강다현(여수여양고1)이 고등부 첫 무대에 나선다.

전남은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7위를 기록하며 확실한 도약을 이뤘다. '동계 유망주'를 전면에 내세운 전남이 기세를 이어 8위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회식은 25일 오후 5시 강원도 평창 모나윙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김길리 2관왕·10대 활약... 밀라노서 빛난 태극전사들

금3·은4·동3...13위 기록 '스노보드' 효자 종목 도약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13위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단이 24일 돌아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쇼트트랙 대표팀 등 한국 선수단 본단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6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남페초를 비롯해 4개 클러스터에서 분산돼 펼쳐진 제25회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국가별 메달 순위에서는 종합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대회 전 목표로 내걸었던 '톱1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금메달 3개는 달성했고, 금메달과 전체 메달 수 모두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금2·은5·동2)보다 많은 성과를 남겼다. 김길리가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선배 최민정(이상 성남시청)의 개인 종목 최초 3연패를 막아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최민정 등과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올림픽 한국 선수단에서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다. 다른 금메달 하나는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2008년생 여고생 보더 최가은(세화여고)이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부상 투혼'으로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3연패를 노린 기존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을 따돌려 세대교체를 알렸다.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의 김상겸(하이원)은 4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 대한민국 선수단 대회 첫 메달이자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기수를 맡은 최민정과 황대현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힘을 보탠 임종언(고양시청),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3위에 오른 유승은(성북고)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빛난 대회이기도 했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가 나와 '효자 종목' 명성을 이어갔고, 최가은과 김상겸, 유승은이 금·은·동메달 하나씩을 따낸

스노보드의 선전도 돋보였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종합대회 때 자체 선정하는 이번 대회 선수단 최우수선수(MVP) 영예는 김길리에게 돌아갔다. 다음 동계 올림픽은 2030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열리며, 그에 앞서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강인, KFA 올해의 선수 첫 수상...손흥민 제쳤다 PSG서 '트레블' 달성 합산 31.4점...올해의 지도자 이정호 감독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국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다. 24일 전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2025 대한축구협회(KFA) 어워즈에서 이강인이 올해의 선수 남자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사진> 손흥민(LAFC)의 뒤를 이어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이 2010년부터 시상하는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이강인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의 일원으로 2024-2025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유럽 프로축구 최고 권위의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경험한 건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소속이던 박지성 이후 17년 만의 일이었다.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PSG는 2024-2025시즌 리그1과 프랑스컵에서도 우승해 '트레블' (3관왕)을 이뤘다. 이런 활약을 인정한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지난해 10월 이강인을 '올해의 국제선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의 선수는 기자단 투표 점수 50%와 협회 전문가(전력강화위원회, 기술발전위원회 및 여자축구 전임지도자) 투표 점수 50%를 합산해 선정한다. 이강인은 합산 포인트 31.4점을 얻어 전년도 수상자이자 역대 최다 7회 수상자인 손흥민(29.2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위는 이재성(마인츠·12.9점)이다. 여자부 올해의 선수는 장슬기(경주한수원·18.4점)가 선정됐다. 장슬기는 2018,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장슬기는 여자대표팀의 20년 만의 E-1 챔피언십 우승에 기여하고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남자 부문은 지난 시즌 전북 현대의 '더블' (2관왕)에 기여하고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한 강상윤이, 여자 부문은 서울시청 김민지가 받았다. 올해의 지도자 남자 부문은 프로축구 K리그2 (2부) 수원 삼성 이정호 감독이 수상했다. 이 감독은 지난해 시민구단 광주FC의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 진출을 지휘해내며 역량을 입증했다. K리그1에서 광주를 7위에 올려놓은 그는 시즌 뒤 '추락한 명가' 수원 지휘봉을 잡아 두 번째 도전을 앞섰다. 올해의 지도자 여자 부문은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WK리그 통합우승을 이뤄내며 트레블(3관왕)을 달성한 화천KSPO 강선미 감독이 받았다. 올해의 심판상은 남자 주심 김대용, 여자 주심 오현정, 남자 부심 방기열, 여자 부심 정은주 심판이 받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교향악단 404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아의 봄
일시 : 2026-03-2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전통과 형상회 : 헤존
일시 : 2026-02-27(금) ~ 2026-03-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